

■ 최신 해외정보 - 브라질 ■

브라질,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 가속화

브라질에서는 인터넷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한 제품 판매 및 유통 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용 보안 프로그램 등 관련 산업에의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터는 브라질의 온라인 소매판매가 2017년까지 2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모바일상거래 부문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브라질 인구의 50%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12%가 스마트폰 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330만 명이 스마트폰 बैं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은행연합회는 2017년까지 약 5,000만 명이 스마트폰 बैं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력공사, 최종 소비자들의 직접 전력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2012년 4월, 브라질 전력공사(ANEEL)는 최종 소비자들이 직접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여 소규모(100KW이하 또는 100KW~1MW)로 전력 생산을 하는 경우 남은 전력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전력은 36개월 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적립된 전력은 로컬 송전소로 보내 전기요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안은 그린 에너지에 속하는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을 이용한 자가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종 소비자들의 자가 발전이 늘어날 경우, 관련 장비 시장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 상업등기소, 전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 주 상업등기소(JUSEP)는 2012년 6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을 위해 전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자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은 상파울루 주 상업등기소의 전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사용자가 회사 등록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회사 등록 초기 단계에서는 법인 대표가 아닌 변호사, 회계사, 기타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전자 공인인증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공식 유관부서는 'Imprensa Oficial'입니다.